

yaña

YANA YEAR BOOK



YANA Ministry is
non-profit organization designed
to bring hope and future to orphans
and children in poverty.

2019

vol.2

YANAHOUSEPROJECT

꿈 꿀 수 있게
현실이 되어 주세요

“Hiring Hope”



www.yanaminsty.org

YANA+PROJECT 는 다양한 일터를 제공해 꿈꿀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BECOME A FAMILY FOREVER SPONSORS

Jane Cho Lisa Choi Daniel Chung/Jiyeon Lee, John/Hannah Hur Hoyeon Hwang Ruby Kim
John Kim/Suji Kwon Angela Lee John Lee/Jessica Lee Sang Lee/Young Kim David Park
Grace Park Miri Park 강문식/강은심 강애숙 강종원/김은경 김 승/김영숙 김기선 김문수/김 앤
김범석/이영림 김병찬/박단비 김선에 김수현/권유정 김양희 김주현/성보승 김지현 김현걸/김자연
조남주 박민우/명윤희 박영배/오리라 박찬두/이은정 박찬영/김도희 박천일/양혜원 신순규/한근주
안상돈/안선희 안숙자 안재욱/김애리 우지원 유재웅/탁현영 이 승/제인영 이용민/박지은 이용우/김윤희
이인섭/황수연 이종범 이주환/최리나 임정수/강 희 위명심 정희성/박희재 차승현/신소영 최병철/조에스더
최승순/최미희 최효일/정애란 한유진 한은준/신윤복 현광진/김금희 황익열/안희옥

YANA SPONSORS

ADIO Corrective Chiropractic. Amitie Inc. Ann Kim MD,PC Christopher Kim MD GLO Solution LLC.
Grand BK Corp. Hahn International Inc. JC Distributor LLC. Primary Health Center LLC.
Quest Academy The PIMCO Foundation The Zion City Alliance Church Truelight Daycare YKC INC
참된교회 참빛교회 늘푸른모임 Calvin Bang/Jennefer Bang Victor Choi/Sylvia Choi Hoyeon Hwang
Isaac Kim/Jane Kim Hyunsook Kim Andrew Lee Jongwoo Lee Sung Lee Sung R Lee/
Young Sun Lee Yeung Lee Hak Jae Lim Allen Park Grace Park Soo J Lee/Jecheol Park
Soonkyu Shin/Grace Shin Jong Cheol Lee/You Ki Soh Kyung Whang 강애숙 강종원/김은경
공화삼/공정희 김상열 김선태/조은주 김영수/유영은 김종환/한지은 김현숙 박예진 박필년
박형규/허정미 송 진/송서향 엄우정 오은환/엄혜자 원종화 유제인 이소중 이영순 이인섭/황수연
위명심 정지숙 최효일/정애란 한동완/김윤희 한정희/Heidi Han

** NOTE: 후원자 이름은 나열은 액수와 상관없이 가나다/abc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Name are listed in alphabetical orders

** 상위 이름은 2018년 한해동안 (1월~12월) YANA Ministry 를 후원하여주신 개인/단체 입니다.
Above names are who made donation to YANA Ministry during 2018.

2019

VOL 2

발행인 PUBLISHER 황 주

편집위원 EDITOR 이수정, 양혜원

WRITERS & CONTRIBUTORS

조도영, 김상열, Isaac Kim, 김광빈, 김연희, 박예진, 한지은, 김은재, 이종오, Aonthoni Park, 노윤주, Ann Kim

번역 TRANSLATIONS Grace Park

사진 PHOTO Jay Kim, 이종오

레이아웃 LAYOUT StoryBird LLC.

광고디자인 AD DESIGN StoryBird LLC., 노윤주

인쇄 PRINTING StoryBird LLC.

PUBLISHED BY YANA



www.yanaministry.org

yanaministry@gmail.com

201.602.6311

SPONSORED BY TRUE LIGHT CHURCH

www.truelight.org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201. 880. 8761

편집·디자인·인쇄 EDITING LAYOUT PRINTING



뉴욕 현지 콘텐츠기획 | 독립출판사

storybirdusa@gmail.com

Kakao talk ID: soocrystal

YANA Board Members

S.K. Shin_Board Chair

Isaac Kim_Vice Chair

Jerry Shim_Treasure

Jimmy Lee_Project Joy

Doyoung Cho_Fundraising

JongO Lee이종오_Flying Happiness

Youngsun Lee_YSAP

Jane Chung_Fundraising

Sangyole Kim_Fundraising

Younsung Kim_YANA Korea Board Chair

Joo Whang_Executive Director

Staffs/Volunteers

Joo Whang_Executive Director

Hannah Yang_Director of Operation

Yoonju Roh_Director of Communication

Grace Han_Director of YSAP

Yongmin Lee_Director of Special Initiatives

Grace Park_Publication

David Park_SMT Field Director

Jay Kim_YANA Coffee House

Sulmi Park_Director of YANA House

Suk Ju Lee_YANA Korea Coordinator

Andrew Lee, Michelle Lee,

Julia Park, Sarah Yu_Field Operators



2019 VOL 2

contents

- 1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YANA HOUSE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 황 주
- 6 BOARD MESSAGE
YANA 같이 하시죠! YANA는 나에게 무엇인가? / 조도영
- 9 BOARD MESSAGE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 김상열
- 12 동명에서 온 편지
YANA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김광빈
- 14 동명에서 온 편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 김연희
- 16 YANA FAMILY
You Are Not Alone / 박예진
- 17 YANA FAMILY
더 큰 사랑만이 남습니다 / 한지은
- 18 FLYING HAPPINESS
섬김으로 행복합니다 / Isaac Kim
- 24 SMT MISSION REPORT
함께 이뤄간 꿈 같은 시간들 / 이종오
- 26 SMT MISSION REPORT
짧은 만남, 긴 여운 / 김은재
- 29 SMT MISSION REPORT
God Is Always By Your Side / Tony Park
- 30 DONATION
- 32 PROJECT JOY
YANA의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게 후원합니다! / Ann Kim
- 34 Xmas Express
다시 한 번 전하게 된 메시지 "You are not alone." / 노윤주

*YANA는 YANA Ministry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YANA에서 따스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도네이션

a. YANA Ministry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www.yanaministry.org)

b. 우측 상단부에 있는 '도네이션' 박스를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수표 혹은 현금 후원

개인수표 혹은 현금에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able to: YANA Ministry Inc.)

YANA Ministry Inc.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Online Donation

a. Visit www.yanaministry.org

b. Click on Donation and simply fill out the information

Check or Cash Donation

Send Check/Cash to

(payable to: YANA Ministry Inc.)

YANA Ministry Inc.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Yana House Project-

글 황 주 / YANA대표, 참빛교회 목사

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parable)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생각보다 쉬운 답에 만족하지 못한 율법 교사는 자신이 더 선하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신학적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답해 주셨는데,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은 굳이 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치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도 못 본 척 그냥 지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근처 여관으로 데려간 후 여분의 돈까지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이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었던 율법교사를 향한 답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영생에 대한 율법교사 질문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마다 저는 과연 내 주위에 강도당해 쓰러져있는 사람이 누군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을까? 나의 자비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일까? 해마다 한국에서는 2,000여명의 아이들이 보육원을 나와 혼자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0명이 넘는 보

육원 퇴소자들의 힘겨운 홀로서기를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 어디 기댈 곳도 없이 하루하루를 헤쳐 나가야 하는 아이들, 오늘도 매정한 사회와 '무관심'이라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아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사람은 어디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 보육원아이가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가슴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살 곳이 없다는 것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세상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정도로 힘들까...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버려질 만큼 내가 뭘 잘못했나?'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YANA는 퇴소한 아이들에게도 이웃이 되려 합니다. 살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살 수 없다"는 생각보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나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퇴소한 아이들, 단 몇 명이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터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2,000명을 다 건질 수는 없어도, 한 명씩 그 상처를 싸매주고, 숙소에서 돌보아 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오늘도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른들에게 '강도 당한' 아이들에게 우린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쩌면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 심하게 강도 당하고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냥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유대인을 돕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훨씬 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교를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좀 더 멋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오늘도 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퇴소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야나도 있을 것입니다.



To Whom Will I Have Mercy?

-Yana House Project-

Among the parables of Jesus, I especially love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t is about a traveler who is stripped of clothing, beaten, and left half dead alongside the road. First a priest and then a Levite come by, but both avoid the man. Finally, a Samaritan shows mercy and helps the injured man.

Jesus is described as telling the parable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a lawyer, "And who is my neighbor?" In response, Jesus tells the parable, and concludes his conversation with the lawyer by confirming that "the man who shows mercy" to the injured man is the neighbor. Jesus then commands the lawyer to "Go and do likewise."

Whenever I read this parable, I wonder about the same question: "Who is the robbed person waiting for my help? To whom shall I show mercy? Who is my neighbor?"

Every year, more than 2,000 high school graduates from orphanages or children's shelters must move out to live independently. 2,000 young teenagers, who have no parental support, no place to stay, nor enough money to survive. I wonder who can truly become their neighbors to show mercy.

In today's society, we have different types of the "robbed man" on the streets, waiting for someone to show mercy. They are the 18-year-old-orphans who can no longer stay at their facilities.



One of the students who moved out from the facility after high school made this sad comment during a news interview:

"The fact that I have no place to live made me to think that I cannot live anymore... I was wondering what did I do that was so wrong that I have to face such a harsh reality...? Did I do something so wrong as to be abandoned by my parents?"

While I was listening to her, I strongly felt the saddened heart of God. Who can be her neighbor? The answer is very clear. We must become their neighbors. Yana must be their neighbors. To those who think homelessness means lifelessness, we must show them that there is a hope in Jesus. We want to remind them, "you are not alone," because God is with them. Yana Ministry will continue to exist to prove the fact that they are never alone.

With this burden and calling of God, we want to start a new project called "Yana House Project." This project is to provide jobs. By providing jobs through Yana House Projects, we want to "bandage their wounds, pouring blessing on them, and look after them" so they can not only survive in this world, but to thrive in their lives.

Our God is continually asking us to "Go do likewise, show mercy." To those who were robbed by their merciless parents, we must show the mercy of God. To those who were abandoned by older adults and society, we must continue to reveal mercy of God. Yana Ministry will be where the mercy of God flows.

YANA HOUSE USA

Coordinator: 양혜원

E-mail: hannahy1101@gmail.com

YANA HOUSE KOREA

Coordinator: 박설미

E-mail: sulmi4243@gmail.com

YANA HOUSE USA

Director: Hannah Yang

E-mail: hannahy1101@gmail.com

YANA HOUSE KOREA

Director: Sulmi Park

E-mail: sulmi424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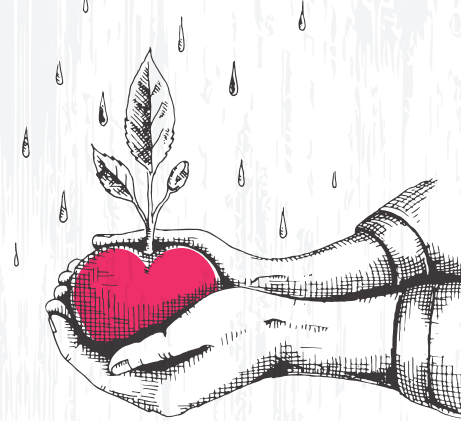
야나 하우스 프로젝트 (Yana House Project)는 한국에 보육원 퇴소 아이들에게 "You are not alone."의 메시지를 일터와 쉼터를 제공해 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이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Yana Coffee House'가 되든, 'Yana Bread House'가 되든, 우리는 퇴소자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귀한 사역에 초대합니다.

The mission of Yana House Project is to be the message "You are not alone." by providing reliable jobs and training to those who left the orphan facilities. We want to build a social enterprise (i.e. Yana Coffee House, Yana Bakery House, etc) so we can provide them with lifelong jobs and a better future.

YANA 같이 하시죠!

-YANA는 나에게 무엇인가?

글 조도영 / YANA 이사



YANA로부터 소식지에 실을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극구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해버린 며칠 전부터, 과연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떠나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내 글을 시작하지 못하던 원고 마감날 저녁, 의외의 방송프로그램이 나를 키보드로 인도하였네요.

여행을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알쓸신잡3’ 피렌체 편에서 방영한 ‘인노첸티 고아원’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가 그것입니다. 무려 600여년 전에 지어진 고아원이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고아원 건물이 아름다우면서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놓고 가면서 나중을 기억하던 표식이나 사연 있는 물건들을 수백 년 간 보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곳 출신 어른들을 인터뷰하여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해 놓은 아이디어는 참으로 신선하고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중에 Paola라는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기를 낳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이 영상을 본 나는 인노첸티 고아원 분량을 한번 더 돌려보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이라고 평생 믿고 살아온 터인지라, YANA를 알게 된 지 수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니 불과 몇 십분 전까지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고아도 아니고, 아주 보통의 부모님과 누님들의 사랑을 한껏 받아 누리면서 잘 지내다가 어찌 어찌해서 미국까지 이민을 오게 된 평범한 이민 1세대 중의 한 명입니다. 판에 박은 듯한 고생스러운 이민스토토리를 거쳐, 한국에서는 통 모르고 지냈었던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무척 평범한 크리스천이지만 여전히 나에게 가족은 아내와 두 아들, 혹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을 가까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며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인 부모에게서 버려져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미국여행으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바로 YANA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 벌써 하나 이상의 아픈 상채기를 간직한 우리 아이들을 또 아프게 할까 염려되어 그 흔한 광고나 홍보행사가 찍이나 조심스러운 착하디 착한 분들일까요? 참 좋은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몇 년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1인 구멍가게 창업을 결심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아름다운 시절에 들었던 생각은 나 혼자만 먹고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내 아이들만으로도 엄청나게 벅찬 현실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냥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자격도 능력도 없이 무조건 황주 목사님을 찾아 뵙고 YANA와 함께하고 싶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격정과 달리 흔쾌히 허락하셨지요. 저는 그저 아직 YANA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고 여유가 되면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중이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도 꼭 하기 싫을 거지만 일단 듣기 좋게 미루어 놓는 거죠. ‘IT’S NOW OR NEVER’는 그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가사가 아니라 진리에 가깝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일은 나중에도 아니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많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름아닌 묘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바쁘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여유가 된다고요? 제가 일 때문에 만나 본 상대적으로 부자들(대부분 빌딩을 짓거나 2~3백만불대의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 여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유는 물질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지요. ‘남을 돕는 일’이라고 했는데, 남을 돕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이것이 단지 ‘남을 돕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도우면 나의 능력으로만 나를 돕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누구의 능력이 더 클까요? 저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건 초등학교도 잘 알 수 있는 질문이군요.**

이제 위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고 여유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본다”라고요. 우리는 바쁘기에 지금 바로 해야 하고, 시간과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칠 내로 굶을 지경은 아니니까요. 우리 세대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YANA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출퇴근해서 일하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공과금 납부에 헉헉거리기도 하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이유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에는 반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족을 위해서 살고 또 가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YANA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가 있는 일하면서 또 재미도 있는 일이지요.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나중에 여유 되면……”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Join YANA!

-What does YANA mean to me?

Written by Doyoung Cho/YANA Board Member

I was in Korea and there was a song I was asked to write a piece for YANA's newsletter. At first, I declined but then spent the last few days in deep thought asking myself, "what in the world could I write about?" The days went by and I had yet to decide even though the due date was approaching. On the day I was to submit my writing, I happened to come across a television program and this is what lead me to sit in front of my keyboard.

There is a show called 'A Mysterious Miscellaneous Dictionary' where people visit different sites and unravel facts and history of the places they visit. The episode that aired was about an orphanage called 'Hospital of the Innocents' located in Florence, Italy. This orphanage was built 600 years ago, and it is still in operation. The building design makes it aesthetically pleasing and the stories that come from its history are deeply moving. There are personal items on display from hundreds of years ago that carry with them stories of the children who were brought there. Visitors are also able to view records of interviews of people who grew up there which make their visit more emotionally moving. One of the interviewees was named Paola. She said, "This is what I believe: family is not formed by the birth of a child. Family is something that is created and nurtured."

After watching this episode again, I sit here writing this piece. I had always believed that family was not something that was created but something that was decided. Even after being a part of YANA for many years and experiencing its work, up until I watched this episode, this is what I believed. I am neither an orphan nor a special person. I am an average person with average parents and average sisters who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nd became a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I experienced the same struggles and hardships like all other immigrants and came to know Christ during my life here in the States. I am an average Christian who is thankful for a blessed life and those who I call family are my wife, two sons and my parents. This was my decided family.

However, I have known people who have been creating families by connect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10 years. They have given opportunities to children who have been abandoned by their parents to come visit the United States and experience the vastness of the world. They have provided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tudy here as well. YANA is the organization that makes these opportunities a reality. It is unfortunate that YANA is not known to many people. The people of this organization care deeply for children who have been hurt and scarred by their life experiences and make it a point to mend their vulnerable hearts. For many years, I have been thinking about how the work of YANA is good and something to be commended for but the fact that not many people know about YANA is saddening.

A few years ago, I quit my job and opened a small business. During

this time, I had made a promise to God. I would not enjoy the grace and blessings of God alone. Jesus said,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for me." Honestly, caring for my own children is a tough responsibility of its own, and it had never occurred to me to take care of another child. However, I was determined to contribute whatever I could realistically. From the very beginning and even now, without having much to offer, I approached Pastor Joo Whang and asked him to allow me to be a part of YANA. Without hesitation, he obliged. I just wanted to make YANA known to as many people as I could. It turns out this would be the catalyst to creating families.

A lot of people say, "Later, when I have time, I will do some volunteer work". This entire statement is in the wrong. "Later" does not ever come. People say this, so they can give a response but not because they really intend on doing something later. "It's now or never" are the words to a song by Elvis Presley but I believe they are words of wisdom. Whatever does not move you now, will not move you in the future. Those who have a lot of time are only found in the graveyard and those who are living are always busy. It's not a matter of having enough time but a matter of priority. Having excess resources? Of all the people I met through business considered to be rich (building developers and those who build houses worth \$2M-\$3M), not one has ever said they had excess resources. Excess does not come from having material wealth; rather, it comes from the heart.

When you experience helping others in need, you will soon realize that it is not just a matter of helping others in need. There is a secret to be unveiled here. If I help myself, it is through my own efforts and abilities. However, if I help others, God gives me those abilities. Whose capabilities are greater? Anyone could answer this question effortlessly.

I want to rephrase the response of people asked to do volunteer work to: "Right now, although I do not have a lot of free time or resources, I still want to start doing meaningful work". Our lives are busy, and we don't have the extra time or resources, but we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our quality of life will diminish because we lend out a helping hand. I'd like to propose a challenge for you to join us in giving hope of a future to those children who have been hurt and have no hope. It is not difficult work and those who are a part of YANA are not extraordinary people. They are ordinary, average, working people like you and me. I don't think anyone would disagree when I say that most people live and work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As such, YANA consists of people who work for their families and also to create families, and it is one reason I live my life and work hard. The work of YANA is meaningful and fun at the same time and I challenge you to join this team. Will you consider joining or, will you still respond with, "Later"?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글 김상렬 / YANA 이사

영화 선들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다. 독일인 선들리를 통해 생명을 보존한 유대인 비서가 Talmude에 나오는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라고 말하며 반지를 전한다. 이를 든 선들리는 "I could have got more, and I could have got more. I didn't do enough.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I could have got more, but I didn't," 라고 말했다.

20살의 나에겐 가히 충격적인 영화였던 듯싶다.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인간은 그 속에서 다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음을, 그리고 무언가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 YANA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번 Flying Happiness를 통해 2-3일정도 여기 유타에 머무르면서 함께 Arches National Park과 Canyonlands National Park를 방문하면서 몇 끼 먹는 게 전부이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매해 소중하고 인상적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첫해인 듯하다. 2013년 2월 유타로 이사 오고 처음으로 동명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까지. Arches National Park 이 있는 Moab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4시간 가량 되는데 지나가는 산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멋있다고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 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아직도 멀었고 앞으로 가서 볼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되니 카메라 용량 아끼라고... 찍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같이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가슴이 뻥 트인다고, 늘 답답한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광활한 대자연 앞에 서서 흠뻑새도 맡고 기이한 Arches & Canyons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의 삶에서 눌린 스트레스와 부담들이 자연스레 치유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멀지만 오는 게 낫구나' 라는 생각과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다시 차량을 타고, 그리고 또다시 뉴저지로 가는 일정이 너무 버거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앞설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뿐이다. 인상적인 것은 방문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수줍음이 별로 없고 밝고 명랑하며 아마도 나의 선입견 때문일 수도, 즐거운 시간을 맘껏 보낸다는 것이다.

2018년 2월에는 뉴저지에서 새로운 식구들이 함께 와서 더욱 뜻 깊었던 듯싶다. 동명 아이들 넷과 선생님 둘을 포함해서 National Park을 산책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감싸두었던 자유함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다른 삶의 재미인 듯하다.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을 함께 보자고 했는데, 저녁내내 곳은 날씨로 인해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기 스키장을 방문했다.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투어였는데, 곤돌라를 타고 해발 10,000ft가 넘는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눈 산은 아이들과 뉴저지 식구들에게 새로움을 더해



줬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2019년에는 스키를 함께 배워보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처음 황 주 목사님을 만나고 YANA의 사역을 듣고 우리 가정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하연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조금 흐른 해였고, 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던 시기였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없거나 깨진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였다. **진언이가 생기면서, 다른 일부 YANA 멤버들처럼 한 아이를 우리 가정으로 데리고 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가정이 아직 준비가 더 되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잠시나마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인 듯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연속인 듯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과 우리의 필요와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작은 것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늘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회원들을 보면서 즐겁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또한 삶의 또다른 기쁨임을 다시금 느낀다.

그리고, 매해 느끼는 ‘내년에는 누가 올까?’ 에 대한 기대감도 제법 괜찮은 듯싶다. 그리고 아이들의 삼촌처럼, 이모처럼 또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것은 이 미국 생활에 또 다른 축복인 듯싶다.

* 김상렬/두 아이(하연 10, 진언 4)의 아빠, 한 아내(유민경)의 남편이고, 사료 무역업(Export Business in Animal Feed Ingredients)을 하는 HaUhn International I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2012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2019년에는 짐바브웨를 방문할 수 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Paying Our Attention Where God Concerns About

Written by Sangyole Kim/YANA Board Member

The last scene in Schindler's List goes like this: Itzhak Stern, a Jewish Holocaust survivor, places a ring in Schindler's hand with an inscription that read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Schindler admires the ring and says,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idn't do enough. Ten people, ten more people. This pin... two people. This is gold. Two more people. I could have got more, but I didn't."

Watching this movie at the age of 20 was quite a shocker. How could humans be so cruel? How is it that one person would pour out his heart and life to save others? How could the life of one person influence the life of another to the point of completely changing that person? This movie surely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I am thankful that I can be a part of this organization called YANA where the people are on a mission to create a nurturing environment for children in need. Although my encounter with them is only once a year during a trip called Flying Happiness, I am grateful and thank God that I could contribute whatever small amount I can through spending time with them visiting Arches National Park, Canyonlands National Park, and sharing meals with them over a span of 2 to 3 days.

Every year of Flying Happiness is special and leaves an impression. However, I can never forget my very first year. After I moved to Utah, I hosted the students, teachers and even the director in February of 2013. Arches National Park in Moab is a four-hour drive and during the trip, the students were preoccupied taking pictures upon pictures and saying how amazing the mountains were. I kept telling them that our final destination was a much greater sight to see and to stop taking so many pictures and save their phone storage for the ultimate scenery they are about to encounter.

When we arrived at our destination, everyone including the students, teachers and director expressed how they were in awe of this enormous and vast creation of nature and how the sight and smell of this fantastic place called Arches and Canyons released all of their built up stress and brought healing to their lives in this one moment. This was a long and arduous trip for everyone to digest as they had to fly quite a distance to Utah, ride in a long car ride to the canyons and then fly again back to New Jersey. At times, I wondered if this was too much for them to handle but in the end it was clear that it was worth the trip.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others and engage in conversations was far more satisfying than worrying about the discomforts of the trip.

I was impressed at the students and how they were not as shy as I

thought they would be. Instead, they were bright and happy. It may have been an incorrect assumption on my part, but it seemed they had a joyful and leisurely time.

In February of 2018, new members flew in from New Jersey and that added a special touch to this year's trip. Four students from Dong Myung along with the teachers had shared a time of expressing things that had been wrapped up in their hearts in a way that liberated them. This was not only liberating for them but it was amusing for me to hear their words and thoughts. Initially we had plans to go star gazing hoping to catch some falling stars but the rainy weather prevented us from experiencing this view. On the last day, we went to a ski resort. This was the first time we had gone skiing as part of our tour. I can imagine how after taking the gondola up 10,000 feet to the summit must have left an impression on the group and I even suggested that we all learn how to ski for next time.

When I first met pastor Joo Whang and heard about YANA's work, I had mentioned that our family would love to get involved. This was when Ha Uhn was a little over two years old. I realized after having my own kid how important the roles of parents were in a child's life. It dawned on me that the lives of children without parents or those who came from broken families must be really tough. I wanted to offer whatever help I could to support the mission of YANA. After our second child, Jin Uhn, was born, I concluded that it would be of interest to bring a child into our home like some other YANA members had already done. This is still a work in progress as my family needs to prepare ourselves and we haven't set a hard deadline as of yet. Most importantly, I realized that being a part of one's life journey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ring much joy to our lives.

We have all been made in the image of God. At least that is what Christians believe. We were formed to resemble Him and this is a continuous process throughout our lives. It is a blessing to know that the small contributions we make in the areas of our interests and in areas of need along with other believers brings joy, and I am thankful for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efore me. I am always touched by the members of YANA and how they continue to faithfully support and serve the organization. It encourages me to be like them and it brings a new sense of joy to my life.

Every year I look forward to the next group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wonder who will come next. This sense of anticipation keeps me in high hopes for the coming year. Spending intimate moments with us as if we were an uncle or aunt and being in a community of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s a huge blessing that is possible in this land called America.

YANA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글 김광빈 / 동명아동복지센터 원장

얼마 전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라는 제목으로 외부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복지정책과 아동복지 현장에 대해 정리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복지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2008년 7월말, 처음 YANA팀이 동명에 방문을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속에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천과 남북 경제 협력 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저성장, 경제적 위기상황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경제정책'은 일부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적 야心和 미숙함까지 겹쳐, 청년실업률 최고점, 고용쇼크, 아파트가격 폭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역대 최고 폐업 등으로 수많은 소시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확정된 2019년 국가 예산안 총 470조원 중 162.2조원(34%)이 보건복지·노동 예산안으로 국방(46.7조원)과 교육(70.9조원)을 합친 예산보다 많음을 보여주는 통계로 볼 때, 대한민국은 분명 복지국가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IMF사태를 계기로 사회보장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2008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2013년에는 완전무상 보육제도, 올해 9월부터는 아동 수당제도까지 도입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별적 복지인 취약 계층 아동복지 시설이 상당부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은, 사회 안전망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부작용의 모순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아시고 10년 전 하나님께서 YANA를 동명아동복지센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 지역사회 아동들과 교류하기 위해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개원하여 교류하며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가슴 아프게도 점차 사회의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교육과 생활수준 또한, 조기유학 열풍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동명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돌출되는 분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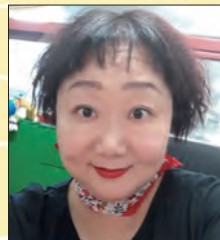
이로 인해 2006년부터 아동들과 기도 제목을 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VBS, Flying Happiness, YSAP, Joy Project, 청개구리반 운영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동명 아동복지센터에서 오래된 노후건물을 증·개축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정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시설현장에서 늘 체험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아동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참빛교회와 황 주 목사님, 그리고 YANA 이사님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글 김연희 /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우리 동명은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대가족입니다. 0세 아가부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7명의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48시간 동안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다양한 후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위해 뛰어다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오늘 하루도 다양한 사건 사고(?)와 함께 뒹굴며 한 아이 한 아이와 울고 웃는 곳, 그곳이 저희 동명아동복지센터입니다.

우리 동명의 아이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가정이 어려워져 키울 수 없다고, 이혼을 하며 각자 재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방치하다가 더 이상 키워줄 곳이 없다고,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고 싶지만 입양법이 개정되어진 상황에서는 입양마저도 안되기에 '베이비박스'라는 곳에 아이를 강포에 싸서 유기를 하고, 매일 미구잡이로 학대를 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동명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동명가족이 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출산이라며 한 아이라도 더 낳으라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혜택을 마구 쏟아내고,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물론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등 모든 친인척까지 그 아이에게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엄마, 아빠에게조차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동명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개구쟁이 두 아들을 낳고 지체2급인 장모님까지 모시며 성실히 직장 다니고 있는 벌써 40살이 된 동명의 졸업생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한 녀석에게 힘든 일이 생긴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의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백혈병에 걸려 얼마 전 골수이식을 받는 수술을 했고 둘째아들의 골수가 맞아서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지만, 결국 학교는 당분간 포기하고 무균실같이 해 놓은 원룸에서 8개월 이상을 지내야 하답니다. 가슴이 더 아팠던 것은 이 아이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했길래. 나는 매일 나와 동생을 때리던 아빠를 피해서 동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열심히 살고 이게 겨우 자리 잡고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보려고 내 아이들에게만은 내가 겪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든지. 왜 자꾸 안좋은 일들이 생기는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또래 아이는 부모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많은 친인척들이 번갈아 가며 간호하고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나는 직장도 잠시 접고 혼자 다해야 하고 아내는 지체2급인 장모님과 형에게 골수를 나누어 준 동생 돌보느라 꼼짝없이 묶여 있고, 가장 마음 아픈 건 형을 위해서 골수를 흔쾌히 준 둘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겨우 작은 게임기 하나 시준다고 한 거였다고.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해줄 것

이 없다고. 나는 부모, 친인척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것인지를 이번에 더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러면서 평평 울던 그 녀석. 정말 아무 위로도 아무 힘도 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먹먹하고 기가 막혀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저 같이 울어 주는 것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그 녀석이 하소연 끝에 가슴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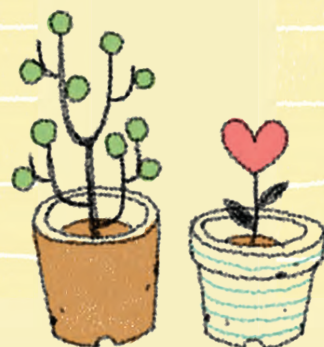
“동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졸업하고는 교회를 아주 가끔 가거나 거의 안 갔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었는지 이제 좀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럴 때 애기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동명의 원장님과 오래된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자리만 마련해준다면 동명의 동생들 모아 놓고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볼까 하네요”라며 희미하게 웃으며 그렇게 가슴 울리는 말을 하고 오히려 잘 이겨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동명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셔 달라는 그 녀석.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한마디.

가끔 동명의 사무실 안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날씨가 맑고 햇볕이 좋은데 막상 나가보면 때론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햇볕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동명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저희의 눈으로 바라볼 땐, 말쑥 꾸러기에 혹은 어린 나이인 데도 불구하고 힘겨워 보일 때도 있지만, 막상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저희도 모르게 그 순수함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나무는 어린아이의 놀이터도 되어주고, 뛰어놀다 더울 때 나무 밑에 있으면서 시원한 그늘과 바람으로 아이들의 땀을 식혀 주기도 하고 열매를 아낌없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의 짙을 찾아 가고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 그 나무를 잊고 지내더라도, 나무는 그 아이를 잊지 않고 나중에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쉬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쉼터를 만들어 주며 언제나 와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어떤 모습의 아이든 어느 때에 찾아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동명의 모든 선생님들과 YANA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앞으로 이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되기’에 동참해 주실 미래의 예비 YANA 식구들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동명의 모든 식구들과 매 순간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루를 보내렵니다. 뜬금없는 수다처럼 늘어놓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 길을.





You Are Not Alone

글 박예진 / 학생



2014년 4월 18일, 혼자 비행기에서 걸어 내려왔다. 혼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다. 그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았던 그 큰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보내고 미국에 홀로 도착했다. 하지만 입국심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더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만나 뵈었던 황 주 목사님과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설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 그리고 나를 위한 가정 이 모든 것이 함께 해 주었다.

한국에 있는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지낼 때는 오빠를 나의 유일한 가족으로 알고 살았다. 가족, 나를 위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 말이다. 항상 오빠와 나 둘 뿐이었다. 동명에서 퇴소 후 미래를 생각하면, 늘 두려웠다. 그 누구에게 기대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 상황들이 말이다.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무조건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때 난 너무 어렸기 때문에 YANA 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순히 미국에 간다는 사실에 들떠있는 12살 어린아이에게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YANA의 식구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가족' 을 통해 YANA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느낀다. 아빠가 이런 말 씀을 해 주신 적이 있다. “예진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또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없어. 너에게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날 아빠가 하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YANA 를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다. 내 주위의 이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 마침내, 나는 나의 집을 찾았다. 소속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혼자라는 불안전함과 두려움을 떨쳐 내게 했다.**

YANA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뜻이다. 나에게 YANA는 가족, 안정, 그리고 끝없는 확신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거나 혹은 내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8학년때 배웠던 로버트 프로스트 작가의 시를 보면, ‘집이란, 당신이 그곳에 가야할 때, 당신을 데리러 오는 그런 곳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YANA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집, 가족을 선물해 주셨다. 비행기는 혼자 탔었지만, 나는 이제 영원히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Yejin Park

It was April 18, 2014. I walked off the plane. Alone. I had just flown for the first time ever. The flight lasted over 13 hours and I was alone on the big airplane, with no one to look after me. But, as soon as I passed through customs checkpoint, I realized I wasn't alone after all. Pastor Joo, whom I had met in Korea, was there at the airport with my new family. They were all there to welcome me to a new country with a new school, and a home of my own.

While I was living in DongMyung, a children's home in Seoul, I often thought that my brother was all the family I had, the only one who looked after me and whom I needed to look after. It was always just the two of us. Feeling alone, I was always terrified of the future when we would have to leave DongMyung, because we would be really on our own, with no place to go back to.

When I was first offered an opportunity to come to America, I knew that it was a rare opportunity and I could not pass it up. To be honest, back then, I was too young to realize what YANA really meant. I was just a 12-year-old girl, who was excited to go and live in a new country. But, as

I spent more time around YANA people, especially my new family, the meaning of YANA became more real. I remember having a conversation with Dad who said, “There is nothing you can to make me love you more. There's nothing you don't do that will make me love you less. Know that you will always have a home to come back to.” What he said that day sparked something in my heart and I started to view the purpose of YANA differently. It finally struck me that I was no longer alone. With these amazing people around me, I knew I finally found my home. A firm sense of belonging replaced the insecurity and the fear of being alone.

YANA stands for ‘You Are Not Alone.’ To me, YANA means family, stability, and assurance without end. No need to worry about what would happen when I grow older or even mess up. Robert Frost, whose poetry I studied in eighth grade, said, ‘Home is the place where, when you have to go there, they have to take you in.’ Through YANA people, God gave me that home. Though I got on the airplane alone, I am now and forever not alone.

더 큰 사랑만이 남습니다

글 한지은 / 참빛교회 전도사



우리 가족에게 몇 해 전부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우리 가족과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을 우리 부부에게 먼저 주시고, 얼마 전부터는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을 품게 하셨다. 내 주위에서는 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는 충고도 해주시고 반대도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품어왔던 마음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올해 2018년도 겨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가정이 한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 지낸다는 생각을 하니 흥분도 되지만 염려도 하게 된다. 막상 이사도 해야 하고 식사메뉴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가지를 계획하며 ‘우리 가족이 과연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다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다가, 하루에도 내 마음에 번덕이 심했었다. 하지만 이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채연이가 우리 가족으로 오는 날을 기다렸다.

2018년 1월 29일, 채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는 날! 아침부터 온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음식을 준비하고 풍선을 불고 테코를 하며, 나는 바쁜 와중에도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거울을 보고 채연이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채연이를 마중나간 남편과 하민, 하영, 하은이가 집에 도착할 때쯤 나는 시계를 보며 계속 창문밖을 쳐다보고 설렘에 빠져서 누군가 나를 툭, 건드리면 울 것 같기도 하고 웃을 것 같기도 한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드라이브 웨이에 차는 도착하고 채연이는 맨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렸다. ‘채연이를 보자 마자 안아줘야지...’ 라고 다짐을 몇 번 했지만 그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채연이에게 “안녕” 이라고 밖에 하지 못한 뒤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주위 어른들 말로는 모든 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난 시작을 완전히 망쳤다.

한국에서 그토록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나이인 채연이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많이 낯설기도 하고 언어도 다른 데다가, 겪어야 하는 학교생활이 시작된 후 가끔씩은 채연이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걸, 더군다나 사춘기인 채연이에게 혼동이 올 수도 있다는 걸 행동이나 대화를 나누며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한 채 이곳으로 오겠다는 결심을 한 채연이는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간혹 한국생활을 그리워하는지 눈물을 흘릴 때도, 한국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쳐다보며 불려도 못 들을 때도 있었다. 채연이에게 동생들이 갑자기 세 명이 생기고 하민, 하영, 하은이에게 누나/언니가 새로 생긴, 아이들 간에도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채연이가 미국에 온 지 9개월째, 감사하게도 지금의 채연이는 영어도 많이 늘고 학교생활에 재미도 붙이며 가족 안에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잠자리에 든 채연이를 보며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면 주님이 내게 아이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실 때가 있고 그런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채연이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되어 어떤 분이 내게 이런 말을 해 주었을 때 이해를 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때 그 분은 내게 “채연이는 복덩이예요.” 라고 말해 주셨다. 우리 부부에게는 채연이 말고도 아이들이 세 명이 있다. 참으로 채연이와 아이들이 같이 앉아 맛난 걸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하며 하하 호호 할 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어른들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사랑을 할 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아픔과 희생이 많이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채연이가 딸이 됨으로 느끼며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서로를 아프도록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남을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채연이를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 찬양, 찬양한다!

“아프도록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남습니다.” -마더 테레사-

12월 12일 행복합니다

글 Isaac Kim / YANA 이사



햇살이 유난히도 따스했던 날, 아내 제인과 나는 해변에 앉아 동명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에서는 경험하기 드문 따듯한 겨울, 따스한 햇볕과 달리 여전히 바람은 추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동명의 아이들 중 운동 꽤나 했을 법한 아이에게 장난을 걸어 달리기 시합 내기를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미식축구와 축구를 했던 나는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이겼다. 아니, 이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곧 그 아이에게 따라 잡히고 말았고, 무참히 패배한 것에 심통이 났던 나는 아이를 놀라게 해 주고자 해변 끝자락으로 밀고 갔다. 이 기억은 Flying Happiness를 통해 경험했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중 일부이다.

몇 년 전, 동명의 아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했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적도 있다. 우리가족이 즐겨 찾은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 를 동명의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였다.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는 박물관, 수족관, 실내 식물원이 함께 있는 곳으로 펭귄이나 상어, 흰 악어, 독화살 개구리, 공룡이라 해도 믿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바다 생물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을 방문할 때 마다 항상 차를 주차했던 주차장이 그날따라 때마침 닫혀있었다. 열 번도 넘게 다녀간 곳이었는데, 처음 겪는 일이었다. 선택의 여지없이 금문교 근처 길가에 차를 세우고 관광을 마치고 돌아왔다. 돌아와 마주한 것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세워 두었던 렌터카의 유리창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깨어지고, 차 안에 있던 가방과 소지품들은 모두 도난당한 상태였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너무 놀라 한참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잠시 후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어느 때와 같이 재잘거리고 서로 장난치며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미 지나간 이 어처구니없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보고 놀라웠다.



아무도 위협에 처하지 않고 물질적 손해만 입은 것이 다행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전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이었다.

해마다 Flying Happiness는 너무나도 큰 행복의 기억들을 남겨 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행복, 그리고 동명을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해마다 다시 경험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친해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이내 곧 서로가 편해진다. 매년 두 눈을 반짝이며 미국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보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을 열어 다가오는 아이들을 볼 때, Flying Happiness를 통해 행복을 선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또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이 모든 일이 YANA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는 YANA를 통해 일을 계획하거나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7년전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주례 목사님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때, 장모님께서 뉴저지에서 섬기시던 교회에 계신 황 주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다. 서로를 알아가는 즈음,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먼 거리를 흔쾌히 와 주셔서 제인과의 결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결혼한 지 일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쯤, 황 주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때 YANA Ministry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왜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커플의 결혼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을까? 왜 YANA Ministry가 생겨났을 그 때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마음에 항상 유소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을까? 우리 부부는 YANA Ministry를 생각할 때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고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비록 우리 모두 몸은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서로 만지셔서 연결하시고 계신다.

우리 부부는 해마다 동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또 섬기는 축복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YANA Ministry를 알게 하시고, 또 YANA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그리고 지금 각자의 처한 환경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 잠시나마 함께 행복한 추억을 같이 하고, 미국에서의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

We Are Happy To Be With You!

Isaac Kim / YANA Board Member



It was a beautiful sunny day on a California beach, and my wife, Jane, and I had just finished sharing our testimonies with the Dongmyung kids. It was a warm winter day, rare for the Bay Area, where the beaches are rockier and despite the sun, it is cooler; however, our hearts were warm that day. I teased one of the boys because he looked as though he enjoyed sports – I asked if he thought he was fast, and he just smirked. “Let’s race,” I said. I played football and soccer growing up, and I was fast. “Was” is the proper tense, as he beat me by a mile in our race and I had to tackle him after and carry him to the ocean’s edge to scare him because I was upset he had beaten me so badly.

That was one of the many good memories I have of Flying Happiness. The worst one happened a couple of years ago when another cohort of Dongmyung teens was visiting San Francisco. We took the teens to the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which is one of our family’s favorite spots. It is part museum, part aquarium and part indoor rainforest. You can see penguins, sharks, an albino alligator, poison dart frogs, and fish so humongous that they look like they belong with the dinosaurs. We have visited Cal Academy a dozen times, and never once did we not find parking in the garage, but that day, the lot was closed, and we had to park on the street in the Golden Gate Park. When we returned to our cars, our rental van had a smashed window and all of the kids’ backpacks, with considerable cash, were stolen. We were all in shock. While we remained shocked for a few more hours, the teens were back to joking around with each other and smiling like their usual ways not too long after the incident. What amazed me was the remarkable resilience of the teens in the face of a jarring unfortunate and inconvenient situation. They understood better than we did that the material items could be replaced and that at least no one was hurt. While anyone from the outside might assume that the teens have very little by traditional and worldly standards, the inner peace and strength that they demonstrated surpassed the maturity of many adults, who often have tougher times dealing with unexpected things in life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The teens had an understanding beyond their years that ultimate control is one thing they do not have. They understood better than we did that the material items could be replaced and that at least no one was hurt. While anyone from the outside might assume that the teens have very little by



traditional and worldly standards, the inner peace and strength that they demonstrated surpassed the maturity of many adults, who often have tougher times dealing with unexpected things in life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The teens had an understanding beyond their years that ultimate control is one thing they do not have.

Each year, Flying Happiness brings us so many blessed memories. We are reminded of why we welcome the trip to San Francisco each year and why we love hosting the Dongmyung kids. Even through the trying times, they demonstrate peace. Every year, their eyes light up when they visit, and after they have had a bit of time to open up, they provide the happiness that is the meaning of the trip. The kids get a taste for a different life and can dream of a different life as well, which we have been able to support because of YANA.

We did not seek YANA out, but God provided the path to it for us. When my wife and I were getting married seven years ago, each of our pastor friends could not officiate our wedding, which was seemingly odd to us at the time. My mother-in-law suggested Pastor Joo, who was a pastor at her church in New Jersey. We got to know Pastor Joo from afar, and he was kind enough to fly out to California to marry Jane and me. A year after the wedding, when we had our first child, we reached out to Pastor Joo to let him know – that was when he told us about YANA. Why is it that a New Jersey pastor married a couple in California? Why is it that we reached out to Pastor Joo when YANA was in its infancy? Why is it that God has always put a special place in our hearts for youth? When we think of YANA, we marvel at how God orchestrates even the smallest of details to create this special opportunity for us to share His love and do His work. Although we all live miles apart, somehow God has weaved our lives together in a way that only He can, connecting us in a way that reminds us that He loves us so much. We are blessed to have the Dongmyung kids visit us every year; we are blessed to be a part of YANA to share with them that God is with them and that this life is not the end; we are blessed to share a bit of happiness with them and in some instances support them in a better life in America.



*source:www.hbsorvik.com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뭉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 신명기 24:19 개역개정

“When you are harvesting in your field and you overlook a
sheaf, do not go back to get it. Leave it for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 Deuteronomy 24:19 NIV

Summer Mission Team

매년 여름 2주간의 기간동안 YANA Ministry에서는 한국 서울에 위치한 동명아동복지센터로 여름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쉬없이 센터로 달려가 2주를 꼬박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할 겨를 없이 뛰어 드는 사역이지만 몸이 힘들고 지침보다 SMT를 통해 변화되고 또 매일매일 더욱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Every Summer, YANA Ministry's Summer Mission Team visit Dongmyung Children's Center in Seoul, South Korea. As soon as the flight from JFK landed in Korea, the mission begins. Even your body is exhausted from 13hrs of flight, there will no spare time for you to rest. However, your energy will be filled with love of God through children in Dongmyung.

함께 이뤄간 꿈 같은 시간들

The Dream-like Times That We've Worked Together

글 이종오 / YANA 이사



올해로 세 번째 동명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50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69명의 아이들과 간호사, 영양사를 포함한 40여명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아이들 중 39명이 7살 미만의 미취학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5박 6일의 동명 일정은 데코레이션을 시작으로 매일 여름성경 학교, 오후 스포츠 활동을 하였습니다. 물해는 수족구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VBS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참석할 수 없는 아이들이 울면서 자기도 VBS에 가겠다고 엄청 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김종환 집사님께서 VBS 전체 일정을 생중계해주셔서 방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울동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등산도 하고 공원에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저 아이들이 좋아 한국에서 참여할 대학생 아이의 고백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소개했던 그 아이가 저희 선교 팀과 함께 생활하며 그리고 선교팀원들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고

싶다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몸은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예배를 통해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 하며 말씀을 듣고 마음의 쉼을 받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동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3박 4일 해남 일정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해남의 여러 지역 교회 아이들과 또 멀리 목포에서 한시간 넘는 거리를 오는 아이들을 포함해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남 VBS에 참석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한국은 폭염으로 매일 10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었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또 부족한 곳이 있으면 함께 가서 도와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참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것에 익숙한 동명의 아이들이 그곳 해남의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남에 계신 목사님 내외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년에 한번 열리는 VBS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VBS에서 배우고 부른 찬양들을 아주 오래동안 따라 부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 가서는 VBS가 그곳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흐뭇했습니다. 떠나는 날,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정말 감동함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가족들과 함께 한 캠프 이야기를 하며 선교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캠프 마지막날 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동명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쌓아 둔 오해나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얘기하고 울다가 웃다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찬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두번의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왜소한 한 남자아이가 저어둠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오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그 아이가 와서 떡과 잔을 저에게 먹여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 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또 한번은 제 주변을 서성이다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아들 윤수였어요. 그냥 아빠를 안고 한참동안 펄펄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윤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네가 뭔가를 잘해서 아빠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윤수가 아빠 아들이라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빠와 아들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 캠프 기간 동안 동명의 아이 한 명을 일대일로 돌보아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는 동명에서도 까불고 말 안듣기로 소문난 5살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2박3일만큼은 '너는 내 아이다' 라는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 수록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끔 컨트롤 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사랑을 주는 만큼 아이도 그 사랑을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을 때 꼭 자기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먹던 과자나 사탕을 제 입에 넣어 주기도 했어요. 아이를 돌보시는 선생님께서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아 곧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몸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핵심은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동명을 방문하여 쌓은 신뢰. 이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기다리고 있는 동명의 아이들, 함께 스텝으로 섬기며 변화되어 가는 아이들, 또 스텝으로 섬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이것들이 동명의 멋진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참빛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소위된 이웃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참빛교회가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위대한 일이 가능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만남, 긴 여운

Short Meeting, Long Lasting

글 김은채 / YANA KOREA



이번 여름 YANA Ministry의 한국 단기선교를 처음 참여하게 된 김은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기선교를 참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단지 그 한 가지 이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동명아동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과연 선교팀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습니다. 동명의 아이들과 선교 참석자들 모두 벌써 서로를 알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그 걱정은 더해졌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놀랐게도, 하루만에 이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곧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며 장난치고 YANA의 멤버 중 한명으로 스며들어 함께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선교는 정말,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과 위로 덕분에 강릉에서 있었던 동명캠프까지 감당하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 기쁨이 띠곤하고 지친 몸을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무언히, 바ibles 스테이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였음에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단기선교 기간 동안, 사역을 함께 한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었고 또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웬지 이번 선교를 참여하고 관계한 모든 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과 서로 신뢰를 쌓고 관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쓰신 야나 선교회 그리고 동명아동복지센터의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모든 슬픔과 기쁨의 상황에 증인이 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명의 아이들 모두가 자라서 풍성한 삶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God Is Always By Your Side

글 Tony Park



I want to start by asking what does YANA mean? YANA stands for you are not alone. For me, this sentence stands out to me and means so much to me.

When I was younger, most of the times I was alone. Never really had anyone. Always felt left alone. This created traumas for me and created depression. Trust me, this was one of the hardest things to overcome in my life. But I did overcome this. How? Because I had friends and family. But most importantly, I had God by my side. This is my testimony to the kids in Dongmyung. Since Dongmyung kids were young and always alone, life must be very tough. They are scared, traumatized and alone. What I want to tell them is that they aren't alone. God is always by your side.

As people, we are not perfect. Only some people are by your side forever. That's your parents. But these kids don't have that so they cannot turn to anyone. They don't know what to do anymore. We have a perfect God. He will always be by your side. This is what I want to tell these kids. Even if you feel like you are alone, you can always turn to God. If someone told me this before, it would have changed my life. I don't want anyone to feel the same way I did and have thoughts that I thought of. I want to change the kids' lives. I want to teach them that they are not alone and God is always there for us.



Short Meeting Long Lasting

글 Eun Jae Kim / YANA KOREA

Hello, I'm Eun Jae Kim and this was my first year participating in the YANA camp. To be honest, I had no idea what kind of commitment I was getting myself into in the beginning. I decided to participate solely because I enjoy being around kids. When I arrived at Dong-Myung (DM), I was worried if I would be able to get along with the camp members. The worry even amplified as I realized that everyone has known each other for years and I was a stranger to everyone. Surprisingly, the concern disappeared in just a day. The kids approached me first and soon after, I found myself joking with people and becoming a member of YANA.

I have to say, the camp was physically challenging. However, I was able to get through it with the presence and help of everyone at the camp, which was how I was able to stay till the Gangneung trip. The mental and spiritual happiness overruled my physical fatigue. The time with every individual at the camp was unspeakable; I could not believe how strong of an attachment I can make with another in just two weeks.

Coincidentally, I happened to get placed in bible station. Although I was in the position of teaching, I was actually learning alongside the children. I don't really know God yet, but the camp prompted me to engage more on the matter. The fact that I was able to join YANA camp and encounter this relationship seems to have some kind of meaning that's indescribable.

I am truly thankful that I got to encounter such a genuine and authentic relationship built from trust. I respect everyone at YANA and DM to have worked for this to happen from such far distances. I hope to be part of this relationship as long as possible and witness all the happy and sad moments together. I want to see DM kids grow and flourish.

YANA 에서 따스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라는
메시지의 실체가 되어 주세요.



Become a Family Forever (BFF)

보육원 퇴소 후 아이들의 독립을 돕기 위한 장학금 적립.
매달 \$30씩, 한 아동을 정기 후원.

YANA Study Abroad Program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비 및 생활비 후원

청개구리반

동명아동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후원

YANA House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에게 일터를 제공해주기 위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Flying Happiness

미국 여행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YANA Family를 통한 행복 나눔기.

Project Joy

미국 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
미래 설계를 위한 첫걸음.

General Donation

YANA에서 해마다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 외의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모든 도네이션은 전액 그대로 YANA Ministry 의
사역에 사용되어 집니다.

후원 방법

1. 온라인 도네이션

YANA 홈페이지 방문
도네이션 박스를 누른 후 카드 정보 입력

2. 개인체크 혹은 현금후원 (Payable to: YANA Ministry Inc.)

Send to: YANA Ministry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USA

Contact: 양혜원 201.602.6311

1. Online Donation

Visit www.yanaminsty.org
Click on Donation and simply fill out the information

2. Check or Cash Donation (Payable to: YANA Ministry Inc.)

YANA Ministry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Contact: Hyewon Yang 201.602.6311

YANA의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게 후원합니다!

-PROJECT JOY-



YANA의 'Project JOY (Jobs On Yana)'는 한국과 미국의 지역 회사 및 개인 사업자들이 YANA와 손 잡고, 아동복지센터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 인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턴ships를 통해서 학생들은 일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2018년 4월에는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성장해 퇴소 후 학업 중이던 조승호 대학생이 한국 정부와 YANA의 후원으로 J-1 비자를 얻어 미국에서 인턴ships를 이행 중입니다. 조승호 학생은 현재 중부 뉴저지에 위치한 컴퓨터 회사 조이 시스템즈(Joy Systems)에서 정식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YANA의 'Study Abroad Program'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 중인 3명의 YSAP 대학생들도 여러 방면으로 인턴 활동을 하며 미래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YANA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Joy Systems, Truelight Daycare, 그리고 Joy Internal Medicine 관계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Project JOY (Jobs On Yana)" started with Korean-American companies and businesses partners with YANA to provide internships for students who have aged out of the Korean orphan facility. Through these internships, students gain valuable work experience as well as networking opportunities to better equip them for their future working life. All three of YANA Study Abroad Program (YASP) students have been experienced such opportunity in a various location. Since April 2018, we have a college student, Seungho Jo, from Dongmyung children's home, who granted J-1 visa for an internship. He also received internship scholarship from Korean government for his J-visa program. Seungho is currently working at a computer refurbish company, Joy Systems, which located in Somerset NJ.

YANA Ministry is forever grateful for "Project JOY" supporters such as Joy Systems, Truelight Daycare, and Joy Internal Medicine for the opportunities offered to our students.



Ann Kim / 'Joy 내과' 원장
2017년부터 'Project Joy' 후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이름과 YANA Ministry의 프로젝트 이름이 같아서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어느덧 두 해를 넘기고 3년째로 접어들었다. 병원을 개원하면서 부터 신기하게도, 대학생 혹은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직원들이 꾸려졌다. 또한 빠르고 쉽게 일을 습득한 직원들 대부분이 의사, 간호사, Physician's Assistant 등의 꿈의 가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Joy 내과'에서 꿈을 품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 지 모른다. 또 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YSAP의 '지나'처럼 미래의 막연함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다. 지나의 경우, 단순히 경험을 쌓고자 시작했던 일이 시간에 치남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이제는 Physician's Assistant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Physicians Assistant는 메디컬 닥터, 의사를 보조하며 그들을 도와 환자를 돌보는 직업으로 요즘은 촉망받는 직업 중 하나이다.)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함께 일했던 2명의 직원은 의대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고, 1명의 직원은 간호대학을 졸업해 대학 병원에서 직장생활을, 또 다른 한 명은 뉴욕의 한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나를 포함한 'Joy 내과'의 많은 직원들이 멋진 꿈을 품고, 실제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Joy 내과'가 그 준비를 위한 기회의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꿈꾸는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는 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또 내가 품은 꿈이다. 지나처럼, 더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그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 나아가,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도 주고 싶다.

병원의 이름이 담고 있기도 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 J Jesus, First
- O Others, Second
- Y You, Last

하나님이 기업을 만들어 주셨고 나는 그 사랑을 직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나누어 줄 뿐이다. 지나가 'Joy 내과'의 가족이 되어 준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지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다시한번 전하게 된 메시지 ‘You Are Not Alone.’

글 노윤주

이번 겨울미션을 기획할 때에는 사역의 무거움이나, 정당성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들떠 있었다. 아이들을 다시 본다는 것만으로 나는 매일 밤 설레면서 날짜를 꿈고 있었고,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신 참빛교회 후원자분들의 선물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긴 비행 시간 동안 뻘뻘한 일정을 정리하며, 이 모든 일정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까, 피곤함에 아이들에게 후원자들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물려들었다.

도착한 새벽, 동명을 향해 가까워지는 차 안에서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소리에 몸을 기누지 못할 정도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센터의 새벽을 열었다. 아이들은 분주하게 학교에 갈 준비중이었고, 몇몇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마주한 아이들의 반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가움과 기쁨을 담담한 표정안에 숨기고, 들뜬 숨소리와 높아진 목소리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가움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뜨겁던 여름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여름으로 돌아가 우리를 맞으며 겨울미션의 시작을 함께했다.

둘째 날부터 시작된 우리의 미션은, 많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버거운 일정이었다. 센터를 나간 아이들은 한번 버려진 기억에 또 다시 센터를 나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풍파를 맨몸으로 맞으며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를 길거리로 내몰고,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버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할 만큼의 엉망인 모양으로 그저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고, 빠르게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갈라놓는 제도적인 넓고 긴 강을 만들었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깊은 형태의 골을 만들어서 그저 서로의 끝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다.

하나하나 만난 아이들은 너무나 순한 눈망울과 뻘뻘한 세상을 건넌 거친 말투를 가진 모순된 모습을 하고 우리를 환하게 반겼고, 그저 안아주고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이들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여름을 기다리고 유일하게 솔직하게 웃으며 아이들 속의 선함을 꺼내 보여주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끝없이 작아지는 나를 보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하나님 없이는 이 사역이, 후원자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아이들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버려진 아픔에 몸부림치는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4일의 외부 일정을 마친 우리는 드디어 기다리던 Christmas Express, 즉 후원자들의 선물을 전달하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저마다 전달된 선물을 뜯으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다. 특히 내 마음을 흔들었던 건, 물론 선물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선물에 함께 들어있었던 후원자 분들의 손카드를 제일 먼저 읽어보고,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에게 카드를 가져와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해하고, 귀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은,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겨울 미션을 통해 나는, 예수님은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부름에 답하는 것이 깊은 외로움과 혼자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게 된 You are not alone.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가 아닌가 싶다.

The Message That We've Got To Send Again: ‘You Are Not Alone.’

As I was preparing for this winter's mission trip, I was so excited that I didn't have time to even think about the weighty task set before us. Even the "righteous" purpose of the trip was not something that had been crossing my mind. The fact that I would be meeting with the children face to face was enough to keep my heart fluttering with anticipation and I was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our flight. With gifts in hand from all of the children's sponsors, I boarded our plane.

During the long flight, I had put the final touches into our packed schedule and was concerned about whether or not we would be able to handle everything without any setbacks. In our tired state, would we be able to convey love and messages from the sponsors to the children? I was overcome with a worrisome and heavy heart.

We landed in the early hours and on our way to Dong Myung I could not sit still because my heart was beating with excitement. And in a moment's time we broke day with our arrival. The children were busily getting ready for school and slowly they started to file into the cafeteria. Upon seeing us, the expressions on their faces were priceless. They tried to hide their surprise and joy behind their stoic faces but were overcome by paced breathing, high-pitched voices, and body language that screamed with excitement. The memories of this past summer's VBS were still fresh in their minds and we were taken back to July and reliving those moments. This is how we kicked off our winter mission trip.

Day two. Today's mission would require much prayer and preparation which, without them, would not be possible to complete. The children who left Dong Myung had already experienced abandonment in their lives and had faced separation again through their departure from Dong Myung. They faced many hardships, emotional and physical, with an inability to bear them. Some ended up on the streets while others gave up on their lives. There were some children whose lives had become so deplorable that they were unable to even ask for help.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feelings of low self-worth and wanted to give up.

Once the children are branded with stigmas of leaving facilities and being out of the radar of the care system, it creates a huge, gaping pit of separation where they are completely cut off from any support and help. The only thing they can do is stand at

either end of the pit and stare at each other in helplessness.

When we met with the students, we were greeted with the look of soft, innocent eyes yet their speech was tarred by the harsh impact of their tough lives creating a conflicting image of who they were. Nevertheless, their greetings were bright and welcoming. The only thing we could do was embrace them with hugs and with warm words as we spent time with them. The result of our conversations left them with an anticipation of next summer when we would come back for our summer program. With honesty and smiles, they opened up to us and shared what was on their hearts.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witness again their innocence and were reassured of the goodness in each one of them. In this moment, I became smaller and smaller and my heart was convicted to share about how big and great our God is.

Without God, this ministry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prayers from our sponsors, the lives of these children would not be impacted. We ourselves would never be able to experience their loneliness, rejection and struggles. The necessity of the work of God's hand and prayers was made so apparent to us in this moment.

After four days of external affairs, it was finally time for Christmas Express! This was when we presented all the children with gifts from their sponsors. It was a special time of joy and happiness as they were all bursting with laughter as they opened each gift. What touched me the most was not seeing the kids light up as they opened their gifts. It was watching them open their personalized cards that came with their gifts. The first thing they did was open the cards to read the messages. For those who could not read, they brought their cards over to me so that they would know what was written on them. With eager ears they listened as I read their cards to them. They were brimming with anticipation to hear the words written on their cards.

Through this trip I realized that Jesus awaits us with a child-like heart. Our answer to his calling is the driving force that allows us to endure loneliness and pain in our lives. I was once again reminded of this truth as I was able to convey the message, "you are not alone" once again. Perhaps this is the message that Jesus is trying to convey to all of us.



당신의 책,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전문가 집단 **스토리 버드**가
사소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리 전문가 집단 **스토리 버드**는
사소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책자 출판

종 교 간증집 | 목상집 | 설교집 | 영성일기 | 교회 사사
가 정 자서전 | 육아일기 | 신혼일기 | 웨딩 다이어리
교 육 포트폴리오 | 그림책 | 패밀리 매거진
취 미 요리 | 여행 | 크래프트 | 인테리어
예 술 사진집 | 미술 작품집 | 디자인북
문 학 시 | 수필 | 소설 | 기행문 | 산문집
간행물 뉴스레터 | 사보 | 협회지 | Year Book | 매거진

스토리 컨설팅

스토리는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는 메시지와 콘텐츠가 필요한 개인, 단체, 회사를 위해
스토리 기획, 창작, 구성, 집필까지 스토리텔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truelight.org

사회적기업 첫 번째 프로젝트

yaña

COFFEE HOUSE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Sponsored by 